

“공부해도 성취하지 못하거든 노승의 머리를 베어가라”



해암의 사자후는 새해 첫날부터 세간에 화제가 됐다. 전국의 주요 신문들이 해암의 신년법어를 받아 기사화했고, 신문을 펼쳐든 국민들이 불가의 최고 어른인 해암이 무슨 법어를 내렸는지 궁금해 했기 때문이다. 조계종 종정 해암이 내린 2000년 신년법어는 다음과 같았다.

<미래는 오지 않고 과거는 가지 않으며, 현재는 머무르지 않으니 삼세(三世)는 텅 비어 미묘합니다. 이 도리를 알겠습니까. 알 수 있다면 해와 달이 새롭고 하늘과 땅이 특별하여 전쟁, 질병, 흉년, 환경파괴, 생사윤회 등 천만 가지의 재앙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새해 새날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참나를 완성하십시오. 누가 이 세상에 신선이 없다 합니까. 모름지기 황아리 속에 탄 천지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인간 외에 남을 맹신하는 사상이 계몽되어 있으므로 인간 자신의 진리적인 참나를 깨닫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레야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병행하여 발전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물질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체 만물은 일심동체(一心同體)의 한 뿌리이기에 이쪽을 해치면 저쪽도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저쪽을 도우면 이쪽도 따라서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면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허망한 나를 버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상호 협조하여, 힘차게 전진하되 원수를 도와주며 남의 고통을 대신 받으면 평화와 행복이 넘쳐 지상낙원이 됩니다.

마음속에 둥근 해가 높이 떠올라 삼라만상을 밝게 비추니 광명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있네.>

해암의 얼굴 사진이 세간에 알려지자, 법문하려고 도회지로 나가면 스님을 알아보고 합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대구의 한 포교당에서 해암을 어렵게 초빙했을 때였다. 해암은 약속한 법문 시간보다 일찍 대구로 나가 포교당 주지를 당황케 했다. 포교당 주지는 생각 끝에 해암을 유명한 대중목욕탕으로 모셨다. 목욕탕은 대구에서 시설과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난 '덕산탕'이었다.

“이봐, 총각. 노스님께서 싫다고 하시는데 왜 귀찮게 하는가!”

“사실은 포교당 주지스님께서 큰스님을 잘 모시라며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자 총각을 나무라던 사람이 물러갔고, 총각은 다시 해암에게 말했다.

“큰스님, 수도꼭지가 있는 이쪽으로 오십시오.”

해암이 답답하여 큰소리를 쳤다.

“그만 두라니까! 내 손발이 멀쩡한데 왜 남 빌어서 때를 밀어, 그러면 내생에 조막손 과보를 받게 되는 거여.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러 가!”

“큰스님, 그러시면 제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단 말입니다. 얼른 미세요. 어서요.”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네, 큰스님.”

“그렇다면 제자로서 절 삼배하고 밀어. 그냥은 할 수 없어.”

목욕탕 사람들이 총각 주위로 다 몰려왔다. 목욕하던 중에 색다른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도 해암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거 다 내놓고 결가부좌한 채로 앉았다. 그러자 총각이 삼배를 했다.

해암이 총각에게 삼배를 받고 자신의 등을 맡긴 것은 다 흘랑 벗은 목욕탕에서도 수행자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포교당으로 돌아와 목욕탕에서의 일을 법문하자 법당 안이 웃음바다로 변했다. 보살들이 웃음을 그치지 않자 해암이 한 마디 했다.

“지금 웃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이웃고’ 하란 말이요. 그걸 알아야 참으로 산 사람이거든.”

초파일에도 해암은 조계종 종정으로서 법어를 내렸다. 이도 역시 불자뿐만 아니라 세간의 국민들에게 주는 법어였다.

초파일에도 해암은 조계종 종정으로서 법어를 내렸다. 이도 역시 불자뿐만 아니라 세간의 국민들에게 주는 법어였다.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나무마다 새가 울며 벌 나비 춤추니 줄을치고 사월이차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모든 중생 생일잔치 일제구 좋고 좋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본래 천진불임을 깨우쳐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가르쳐 주시며 오직 생사 일대사를 위하여 연극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본



그림 · 최문정

“ 부처와 조사 보기를 원수같이 하여야 바야흐로 공부하게 된다 ”

선보다는 기도와 염불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상경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억천만겁 동안 나의 깊고 묘한 법문을 다 의운다 하더라도 단 하루 동안 도를 닦아 마음을 밝힐만 못하느니라. 멀고 먼 전생부터 같이 도에 들어왔지만 아난은 항상 글을 좋아하여 글 배우는 데만 힘썼기 때문에 여태껏 성불하지 못했느니라. 나는 그 반대로 참선에만 힘썼기 때문에 벌써 성불하였다.”

옛 도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명경(明鏡)과 같이 밝다. 탐진치 망상의 티끌이 쌓이고 쌓여 그 밝음을 잃고 캄캄하고 어두워서 생사의 고통 받게 된다. 모든 망상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면 본래 깨끗한 밝음이 드러나 영원히 어두움을 벗어나서 대자유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학문에 힘쓰는 것은 명경에 먼지를 자꾸 더하는 것이어서 생사(生死)를 더 깊게 한다.”

육조 스님께서는 나무장사로서 글자는 한 자도 몰라도 도를 깨친 까닭에 그 법문은 부처님과 다름없고 천하 없이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절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천태 스님이 도를 수행하다가 크게 깨치니 그 스승 남약스님이 칭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장경을 다 외우는 아무리 큰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너의 한없는 법문은 당하지 못할 것이다.”

역(易) 선사는 고봉선사의 법제자입니다. 출가해서 <심경>을 배우는 데 사흘 동안 한 자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스승이 대단히 슬퍼하니 누가 보고 “이 사람은 전생부터 참선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여 참선을 시키니 과연 남보다 뛰어난게 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크게 깨쳐 그 당시 유명한 고봉선사의 제자가 되어 널리 법을 펴셨습니다. 99세에 입적하여 화장을 하니 연기는 조금도 나지 않고 사리가 무수히 쏟아져 사람들을 더 한층 놀라게 하였습니다.

영명 선사가 말씀하시되, “널리 세상에 참선을 권하노니 설사 듣고 믿지 않더라도 성불의 종자는 심었고, 공부를 하다가 성취를 못하여도 인간과 천상의 복은 훨씬 지나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총림에 있으면서 10년, 20년 말하지 않고 공부하여라. 그래도 너희를 병어리라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공부하여도 성취하지 못하거든 노승의 머리를 베어가라.”

필요한 말을 할 때도 화두가 항상 계속되어서 간단이 없어야 합니다. 자성을 밝히는 선문(禪門)에서 볼 때는 염불도 마구니며, 일체 경전을 다 외워도 의도이며, 대비심으로써 일체 중생을 도와 큰 불사를 하여도 귀신입니다. 모두 다 생사법이지 생사를 벗어나는 길은 되지 못하니 필경 승장단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성을 밝히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동산 스님이 “부처와 조사 보기를 원수같이 하여야 바야흐로 공부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울메미는 다 크면 그 어미를 잡아먹나니 공부인도 필경 이와 같이 부처와 조사를 다 잡아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게 되는 때입니다.>

해암의 법문을 들은 신도를 가운데는 발심하여 당장 원당암으로 내려와 화두를 받고 난 뒤, 재가불자 선방인 달마선원에 입실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마다 해암은 공양 중에서 가장 큰 공양은 참선하면서 자성을 찾는 자성공양(自性供養)이라고 당부하곤 했다.

<계속>

해암의 사자후는 새해 첫날부터 세간에 화제 도회지에 나가면 합장하는 사람 많아져 법문듣고 발심하여 곤장 입실하는 불자도 “오직 자성을 밝히는 것이 살 길” 참선 수행 독려

덕산탕에는 직업적으로 때를 미는 사람도 있었다. 포교당 주지는 때 미는 총각을 불러 말했다.

“해인사 큰스님이시니 잘 모시게.”

“어느 큰스님이십니까.”

“해암 큰스님이에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자네가 어떻게 큰스님을 아는가.”

“우리 어머니가 해인사 신도입니다.”

“아, 그런가. 잘 됐네. 이것도 인연이구만.”

포교당 주지는 때 미는 총각에게 돈을 주고 돌아갔고, 해암은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해암이 목욕탕에 들자마자 때 미는 총각이 합장하고 말했다.

“큰스님,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것이야.”

그래도 때 미는 총각이 달려들자, 해암이 손사래를 쳤다. 두 사람이 알몸으로 육신간신하자 목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킁킁 웃어댔다. 그러나 때 미는 총각은 포교당 주지에게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분사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나 오신 뒤에도 후로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며 근본 원리입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모두 천진불이니 부처와 같이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권위자는 공심을 써야 합니다.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질책하는 것은 일심동체의 본연성을 모르기 때문이니 서로의 본연성을 알고 보면 싸울래야 싸울 수 없으며 해질래야 해질 수 없습니다.

본래 성불의 이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본분사로 말하면 내 본심 밖에 부처가 따로 없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바다 밑에 등불 켜니 온 세상이 밝아지고
허공으로 북을 치니 중생들이 잠을 깨네.

아 악!>

멀리 서울 진관사로 시자를 데리고 올라가 서울 신도들을 위해 ‘자성을 밝히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법문하기도 했다. 서울 신도들이 절에 가서 대부분 참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 으로서 생사가 돌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정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